



문화예술계의 거름

정승우 재단법인 유중재단/유중아트센터 이사장

2011년 문화예술사업을 시작한 이래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매우 잦은 편이었다. 전시 관련 미팅, 아트페어, 해외 경매 참석,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한 현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미팅 등이 많았다. 게다가 직함을 알고 있는 여러 단체 방문만으로도 일주일 일정이 꽉 차기에 쉬는 시간은 그나마 휴대전화만 터지지 않는 비행기로 이동 중일 때 정도였다. 비전공자로서 다원예술을 추구하는 복합문화공간 사업을 시작한 까닭에 지난 9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실험 단계부터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미술과 음악을 한 공간에 공존하도록 하는 일에 힘썼다. 초기에는 주로 우수한 클래식 연주자들과 시각예술가들을 선별해 공연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최근 내가 힘을 쏟고 있는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처음에는 단순한 창작 공간 제공으로 시작하여 전시 기회 제공으로 발전했고 이후 직접 예술 작품을 매입하는 단계를 거쳐 아트페어에 참가하게 이르렀다. 대기업 산하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와 비교하면 유중아트센터는 운영 주체와 참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정산없이 바쁜 나의 일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바뀌었다.

3월 이후 모든 해외 일정과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 일정이 취소되면서 지금까지의 사업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대한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기도 하고, 이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에 고려대에서 '국내외 예술품 경매에서 주요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를 취득한 뒤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고려대 법학연구원 산하에 '문화예술법 정책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문화예술계는 지난해 전방위적인 비대면화(온라인화)로 그 패러다임이 강제 전환되는 경험을 했다. 아슬아슬하고 비효율적이며 비현실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일정 부분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느껴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결국마 단계였던 온라인 경매, 온라인 전시, 실시간 공연 감상은 향후 우리 문화예술계를 뒤흔들 또 다른 화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1년은 이러한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문화정책이나 예술법 등 제도적 측면까지 목소리를 내고 꾸준히 연구하는 자세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거름과 윤활유 같은 역할을 알아볼 작정이다.